

중국의 증권시장 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유다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한중 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양국 간의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고속성장을 이어 왔고 특히 최근 십여 년 사이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금융시장을 크게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은행업과 보험업의 개방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한국계 은행과 보험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에는 위안화 취급업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중국전역으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방도가 비교적 낮았던 중국 증권시장에 외국기업에게 증시상장을 개방화 할 것이라는 전망과 중국정부의 증권시장 내 국제판 계획이 제시되면서 해외기업의 중국증시상장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GDP규모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증시규모를 나타내는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의 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은 시가총액을 크게 키워 세계 증시 1 위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증권업에서 외국 증권사들은 QFII자격 획득이 유일한 증권시장 접근방법이었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QFII투자한도를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장했고, 인민은행 저우샤오찬 총재는 중국이 외국 적격기관투자자의 중국자본시장 참여제한을 대폭 풀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총재는 여건이 성숙되면 QFII와 QDII에 대한 자격제와 한도 심사 제도를 폐지해 국내외 기관에 관계없이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QFII와 QDII 모두에 대해 투자 한도를

점차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¹⁾ 중국의 이러한 계획은 외국기관 자금의 중국 자본시장 유입과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 등 국내외 자본 쌍방향 유출입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앞당기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시가총액을 크게 늘려 시장을 키울 수 없어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제판 개설인 것이다. 중국이 2009년 국제판 개설을 발표한 후 300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상장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상하이로 2020년 까지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단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외국기업 주식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으나, 발표 후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국제판은 개설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480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고, 이들은 초우량기업에 속하며 국제판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개설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인 법규나 세칙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조만간 개설될 국제판 상장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 지 미리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외국기업에 개방이 되어있으며,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중국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IPO 시장에 비교 해보면 한국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짧은 심사기간, 저렴한 상장비용, 정부의 외자상장에 대한 우대 정책 등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한국 IPO 시장에 대한 열풍이 불거졌다. 그러나 중국에 상장하게 될 기업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중국에 진출해있는 세계적인 대형기업과 중국증시에 상장되지 않고, 홍콩에 상장된 이른바 '레드칩'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CJ 등이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유치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일단 개설만 되면 많은 기업이 IPO 를 위해 줄을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우대 정책보다는 상장하려는 기업의 적합성을 따져 상장을 허가할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국제판 개설은 증권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중국이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1.2 연구방법

1) “자격제 폐지 QFII 문호 확대, 인민銀 저우총재 밝혀”, 2013.11.12, 뉴스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120000343>

본 논문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중국의 증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대외개방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증권시장 개방에 관한 중국정부의 입장 발표와 중국 내 학자들의 의견이 담긴 인터뷰 혹은 저서를 참고해 앞으로의 글로벌화의 방향을 전망해본다.

1.3 선행연구

최근 수년간 중국 금융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상수·구기보(2003)는 중국의 WTO 가입 후 증권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기보(2004)는 적격 역외기관투자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본 제도를 이용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서봉교(2007)는 중국 증권시장이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더딘 가운데서도, 외국 투자은행들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는 것을 밝히며, 중국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시장개방 내용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과 연관된 중국의 금융제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구기보(2008)는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투자은행 모델이 증권사 중심의 투자은행, 금융지주회사 모델, 은행 내부 경영 모델 등 주로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금융사들이 적합한 경영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 신용카드산업과 프라이빗 बैं킹업, 자산운용업 등 활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은행업에만 집중되어 있던 중국 금융에 관한 연구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매년 중국금융시장포커스를 발간하며,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동향과 제도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판 개설 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현황

중국 증권 거래시장은 1990년 설립됐다. 1990년 11월에 설립된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다음 달인 12월에 운영을 발표했다. 심천 증권 거래소는 1991년 4월에 설립하여 이듬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몇 개월 내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심천 증권거래소는 각자의 종합 지수를

발표함으로써 중국 자본시장의 개막을 열었다. 1992년 10월, 국무원 증권 규제위원회와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중국 자본 시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시스템의 제약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감독 기관이 설립된 후 그들은 일련의 규제를 작성했다. 그 중에서 통일 감독체제의 구축, 회사법의 제정, 증권과 투자펀드 임시 관리 법규 등 자본 시장의 법규체계를 갖추었고, 그 속에 주식 발급 심사 및 승인 시스템, B주 해외 상장 등도 포함된다. 1998년에는 증권법을 제정하여 증권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증권시장의 관리는 법제화 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투자집단의 상황을 변경하였고 증권 감독위원회는 펀드시장 개발을 시작했다. 심사 절차의 편리화와 규범화 및 관련 법규가 잘 갖춰짐으로써 중국 펀드의 규모는 단기간에 급성장했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주요 투자 기관이 되었다. 2005년 주주의 지분 분할 개혁(reform of non-tradable shares)은 증시 자원 배치의 최적화를 위해 기초를 확립했다. 기초적인 제도차원에서 증권시장은 국제 시장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²⁾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증권시장은 현재 점차 개방의 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스스로 증권시장 발전에 필요에서건, 중국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외국의 요청에 의해서건, 또는 인민폐 국제화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상호반대급부이건, 이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금융시장에 대한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 후 개방 유예 기간(2006년 12월)까지 은행, 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방되었지만, 증권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개방만 이루어져 왔다. 외자 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자법인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합자증권사 내지 합자 자산운용사 또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표- 1 > 중국 금융산업 개방현황

영역	개방 현황	외자계 진출 현황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12월 WTO 가입, 대상고객과 지역제한 점진 철폐 ▫ '06년 말 위안화 업무 취급지역 및 고객제한을 완전 폐지, 외국계은행에 100% 출자 현지법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31사 ▫ 한국계: 7사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12월 WTO 가입, 외국인지분 50% 합작생보사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법인: 43사

2) 주옥, 중국증권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대한 간략한 연구, 순천향 대학교 석사논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립 허용 ▫ '03. 12월 외국 손해보험사의 100% 출자 현지법인 설립 허용 ▫ '04. 12월 설립지역 제한 및 생명보험 상품취급 제한 철폐 	<p>(합작생보 27, 손보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계: 4사 <p>합작생보 1(중항삼성) 손보(상성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p>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QFII 제도 도입, 합자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33%) 설립 허용 ▫ '06년 말 QDII 제도 도입, 외국인의 합자자산운용사 지분 49%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자증권사: 9사/106사 합자자산운용사: 33사/60사 ▫ 대표처: 152개 (한국계: 11사)(‘10.9 월말) ▫ QFII기관: 217사 (한국계: 17사)(‘13.4 월말)

자료: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 현황과 향후 과제

WTO 개방 유예기간이 끝나던 2006년 12월부터 중국과 미국은 약 2년간 5회에 걸친 전략경제대화³⁾(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이어가며 양국 간의 경제관련 현안을 다루었으며, 중국 증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 와 고위급 대화를 한데 묶어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로 논의의 격을 한 단계 높여서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의 틀 안에서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2009년 1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 이후 매년 개최 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증권업에 대한 개방은 점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제 4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를 통해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개방안이 양국 간에 합의되었다. 이러한 합의 사안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계 증권업자에게도 향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

3) 2006년 12월 제 1차 대화를 시작으로 하여, 2008년 12월까지 총 5회 개최. 미국 재무장관 및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주재. 양국 간 경제관련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이며, 양국 간 경제관련 이슈가 주요 의제임. 2009년 7월 고위급 대화(SD: Senior Dialogue)와 함께 전략 및 경제대화 로 병합됨.

증권사들도 중국 증권시장에서 각자의 전략에 맞는 현실적인 발전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 > 중국 증권시장 관련 주요 협의 및 개방 현황(WTO 가입 이후)

년도	주요이슈
2001 년	WTO 가입(2006 년 12 월까지 이행 유예 기간)
2002 년	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 제도 도입(한도 100 억 USD) 외자합자 증권사 및 운용사 지분 허용(외자지분 각 33% 상한) 외국증권사의 중국대표처에 증권거래소 특별회원 자격 부여
2003 년	제 16 기 3 중전회(자본시장개혁 결의)
2004 년	국무원 9 조 의견(자본시장개혁의 구체적인 지침발표)
2005 년	비유통주개혁 CP ⁴⁾ , Panda Bond 발행
2006 년	신회사법, 신증권법 시행 QDII(적격국재기관투자자)제도 도입 외자합자 운용사의 외국인 지분 49%로 상향 조정 제 1 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2007 년	제 3 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주요 합의 사항 -QFII 한도 상향(100 억 USD -> 300 억 USD) -QDII 의 투자범위 확대 -2007 년 하반기에 외국증권상의 중국시장 진입금지령을 취소하고 합자증권상을 포함한 증권회사의 경영허가증을 회복시키며, -2007 년 말 개최 합의된 제 3 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전까지 외자증권상의 중국내 업무종류의 확대를 허가함(중개업무, 자영업무 및 기금관리 포함) -외자은행의 자체 브랜드 인민폐 신용카드 및 대출카드 업무 개방 상장회사 공사채 발행 허용
2008 년	MTN(Mid-Term Note, 중기어음) 도입

4)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형식의 단기 채권. 1981 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했다. 이제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 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은 떼이게 되므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어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p>2009 년</p>	<p>차스닥⁵⁾ (Chi-Next) 개장 제 1 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회 주요 합의 사항 -금리 자유화와 소비자금융 추진 -자격을 구비한 미국 금융 기관에 대한 QFII 승인 가속화 -외국증권회사의 국내 주식시장 거래,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 자문서비스업 참여 확대 등을 추진</p>
<p>2010 년</p>	<p>신용대주제도 시범 시행 CSI300⁶⁾ 주가지수선물 거래 시행 제 2 차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 -QFII 의 주가지수선물 거래 참여 허용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확대와 금융시장 감독을 위한 협력 강화</p>
<p>2011 년</p>	<p>RQFII 시행(초기 한도 200 억 RMB) QFLP⁷⁾ 시범 도입 QDII 자격 재개방: 자격요건 부합하는 신탁회사에 자격 부여 QDII의 해외 REITs⁸⁾ 투자 허가 신용대주거래 세칙 발표, 정규 시행 제 3 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회 주요 합의 사항 -위안화 국제화 지지 -외국계 은행(중국법인)의 금융시장 투자 허용 폭 확대 8 차 CEPA(중국-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 보충협약 -RQFII 투자 범위 등 논의 외국계 은행(중국법인)의 중국 내 펀드 판매 자격 허용</p>

5) 차스닥 [創業板, Chasdaq]. 나스닥·코스닥과 같이 중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시장 중국판 나스닥·코스닥 시장을 가리키며, 2009년 10월 23일 출범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국 내 벤처기업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008년에 도입을 지시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수 구성은 선전증권거래소 규정에 의해서 운영·관리·감독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6) CSI(China Securities Index) 300 지수는 '심천 A 주식'과 '상해 A 주식' 중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 총액 규모가 큰 300여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것이며, 중국 A 주식 시장 전체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지수이다. 기준 시점은 2004년 12월 31일이며, 기준 지수는 1000P이다. 코스피 200과 마찬가지로 유동주식 비율을 감안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구성 종목의 정기변경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이 교체시기이다. 출처: 중국 CSI 300 지수 | 작성자 나무늘보

7)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의 약자로 적격 외국 유한파트너를 일컫는 말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 한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8)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출처: 두산백과.

2012 년	<p>제 4 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 주요 합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안화의 SDR⁹⁾ 편입 지지 -외자합자 증권사 및 선물중개회사의 외자지분 비율 조정(각 49% 허용) 및 외자합자 증권사의 업무범위 확대 - QFII 한도 확대 <p>QFII 및 RQFII 한도 상향(각 800 억 USD, 2700 억 RMB 로 상향)</p> <p>QFII 신청 자격요건 완화 및 투자 범위 확대</p> <p>운용사 라이선스 취득 기준 완화 전망</p>
---------------	---

자료: 한국증권사 중국진출 및 전략적 재배치

3. 결론

최근 중국이 외국기업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외 새로운 방식의 중국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증권 국제화 수준은 아직 낮지만 시장은 크고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법규체계와 감독 시스템 등 많은 부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국내 투자주체들도 발전, 성숙해지고 있다. 이처럼 증권업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도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어 어느 정도 중국 증권시장의 국제화 조건은 갖추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을 자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에는 많은 경험과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외국기업 상장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에서 한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분석은 향후 중국의 국제판 개설 이후 중국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전면 개방하지 않고, 오직 QFII 제도 만으로 외국에 증권시장을 개방했던 중국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중국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고, 모두

9)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SDR은 IMF에서 창설되어 IMF가맹국이 규약에 정해진 일정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통화체제로서, 제 2 차대전 이전은 금을 국제통화로 하고 대전 후에는 이에 대립하는 외화(미달러, 영파운드)를 제 2의 통화로 해서 금과 병행시켜 왔으나, 1967~68년의 파운드위기와 달러불안을 계기로 IMF는 이 특별인출권을 제 3의 통화로 해서 국제유동성을 부여하고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IMF의 일반인출권(이른바 자금공여)과는 구별된다. 출처: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

세계적인 기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엄선된 기업만을 상장시키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증시에 상장이 된다면 중국 내에서 경영 활동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중국 내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중국이 다소 엄격한 상장제도를 제시할 경우 상장가능성이 가장 큰 한국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이랜드, CJ 등이 될 거라고 한국의 중국금융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판 개설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판 개설 계획이 나온지 4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2009 년에 계획을 발표하고, 2011 년이나 2012 년 1 월만 해도 중국정부는 상하이국제금융센터 건설계획과 함께 국제판 개설을 적극 추진하며 중요한 금융개혁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같은 해 5 월 국무원판공청은 “국제합작과 경쟁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적당하게 금융시장의 개방을 가속한다. 적시에 해외기업이 중국 내 인민폐 주식발행을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내 국제판 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이 우려하는 있는 문제는 현재 A 주 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들의 주가폭락일 것이다. 중국의 유가증권시장은 2007 년 6,124p 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엔 2,000p 초반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국제판이 개설되면 세계규모의 초우량기업들이 상장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얼어버린 기존 A 주시장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 증권시장에서 국제판 개설과 관련된 정부의 언급은 곧바로 증시의 영향을 미쳐 증시하락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A 주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은 국제판 개설을 매우 반기지 않고 있어, 중국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국제판 개설을 강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은 이미 완성했고, 증권개혁과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제판 개설을 피할 수 없어 중국정부와 상장기업들과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나갈지 지켜봐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미 중국 A 주에 상장하려고 대기중인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상장을 대기중인 기업이 800 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증시불황으로 IPO 를 일시 중단하고, 이전보다 문턱이 더 높아지자 대기기업수가 크게 줄어 660 곳으로 감소되었다. 일시중단 된 IPO 는 당분간 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판 개설은 더욱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증권시장은 점차 개방화되어 글로벌화, 선진화의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이고, 당장은 힘들지만 국제판 개설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중국이 요구하게 될 엄격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상장 후에도 세계적인 대형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서봉교, 「글로벌 금융사의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학회, 2007

안병국, "중국주식시장과 국제주식시장과의 비동조화 요인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8

손영학, "한국과 중국의 자본시장 국제화에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9

이은혜, "중국 증권시장의 개방정책과 진출전략" 송실대학교 석사논문 2010

이효용, "중국 QFII 제도와 한국의 90년대초 증권시장의 개방정책의 비교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6

전병서,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밸류앤복스, 2010

하 위, "중국 주식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석사논문 2011

2010년 Ernst&Young 글로벌 IPO 시장조사연구보고, 회계법인 Ernst&Young.

네이버금융: <http://finance.naver.com/>

중국국가통계국: www.stats.gov.cn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 www.sse.com.cn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http://www.csrc.gov.cn/pub/newsite/>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 증권거래소: www.krx.co.kr

